3월 15일(월) / 출 9-12

▶ 내용요약 : 출애굽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을 통해 표적을 나타내셨다. 애굽의 바로 왕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을 초토화 시키신 것이다. 또한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애굽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마나 남았던 채소와 곡식을 전부 먹어치우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흑암으로 애굽 전 지역을 뒤덮으셔서 삼일 동안 빛을 볼 수 없게 하셨다. 그럼에도 바로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였다. 이에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것이라고 바로 왕에게 경고하셨다. 한편 12장에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 질문 : 열 가지 표적 중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12장)

▶ 생각하기 :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평안과 소망을 누리자.

3월 16일(화) / 출 13-16

▶ 내용요약 :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 길로 이끄셨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행진을 멈추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좌우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다. 반면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휩쓸리고 말았다.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은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며칠 동안 물을 얻지 못하여 괴로워하다가 마라에서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셨다. 또한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

▶ 질문 : 하나님께서 좌우로 가르신 바다의 이름은 무엇인가?(14장)

▶ 생각하기 :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

3월 17일(수) / 출 17-20

▶ 내용요약 :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목마름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하셨다. 이후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모세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아론과 훌이 곁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모세는 제단을 쌓은 후 '여호와 닛시'라고 불렀다.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드로는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의 리더들을 세워 업무를 분담하도록 조언하였다. 19장에서 이스라엘은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허락하셨다.

▶ 질문 :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산의 이름은 무엇인가?(19장)

▶ 생각하기 :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론과 훌이 그의 곁에서 함께 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신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기억하자. 그분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3월 18일(목) / 출 37-40

▶ 내용요약 : 출애굽기 37장에는 언약궤와 상, 등잔대, 그리고 분향할 제단에 대하여, 그리고 38장에는 번제단, 놋 물두멍, 성막 울타리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모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한편 성막을 위한 모든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과 은, 놋 등을 바침으로써 자발적으로 동참하였다. 마지막으로 39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작하였다. 그렇게 성막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준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 그리고 40장에서 이스라엘은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렇게 모든 역사를 끝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하였다.

▶ 질문 :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성소의 모든 물건을 정교하게 제작한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37-38장)

▶ 생각하기 : 성막과 그 안에서 사용될 물건을 만드는 작업에는 매우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담당할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까지도 허락하신다.

3월 19일(금) / 레 1-3

▶ 내용요약 : 레위기 1장에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 첫 번째인 번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가죽은 제외하고)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때 번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두 번째로 2장에는 소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 소제는 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서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로 3장에는 화목제 또는 감사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 화목제는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단을 쌓고, 흠 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 후 회막문에서 잡는 것이다. 제물의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렸으며, 내장과 콩팥, 간 등은 제단에서 불살랐다.

▶ 질문 :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것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인가?(1장)

▶ 생각하기 :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과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자.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로마서 3장과 히브리서 10장을 읽으라)

3월 20일(토) / 레 4-6

▶ 내용요약 : 레위기 4-5장에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 네 번째인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 속죄제사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은 드리는 사람의 신분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졌다. 특히 수송아지나 숫염소를 준비하기 어려운 가난한 백성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대체하여 드릴 수도 있었다. 만약 이조차도 드리기가 어렵다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허락되었다. 한편 5장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도 기록되어 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 무지함으로 인해, 또는 실수로 인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특별히 속건제는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물건의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도 가르친다.

▶ 질문 :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는 무엇인가?(5장)

▶ 생각하기 : 속죄제물은 각 사람의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가난한 사람은 송아지나 염소를 드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관심과 배려를 베푸신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세심하게 헤아리시며 배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3월 21일(일) / 레 19-21

▶ 내용요약 :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생활이나 종교적 제의에 있어서 뿐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구별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나 예절, 재판 등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한편 20장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 간음하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21장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지도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외모, 결혼, 옷차림 등에 있어서도 구별되어야 했다. 이처럼 19-21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한 거룩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사실 이는 레위기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 질문 :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19장)

"너희는 (　　)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　　)함이니라"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종교적 제의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규율과 태도에 대해 교훈하셨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확신과 소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우리의 구별된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야 함을 기억하자.